

## 1945년 해방공간에서 교차하는 미군과 일본군의 이동\*

김 윤 미\*\*

머리말

I. 일본군 현황과 병력 배치

II. 미군의 거점지역 주둔과 활동

III.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수물자 처리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 동북아 지역의 물리적 주체였던 일본군과 현대 동북아의 물리적 주체로 등장한 미군이 해방공간에서 교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1945년 일본군과 미군의 이동은 일본 ‘제국’이 붕괴하고 국민국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현대적 시작을 의미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가장 먼저 일본군 무장해제와 철수를 실시했다. 일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군정의 행정업무가 아니라 미군의 첫 번째 군사 작전이었다. 이것은 남한이 ‘해방지역’이 아니라 ‘점령지역’으로 미군이 직접통치하는 작전구역이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점령한 지역은 일본군의 군사적 거점지역이었다.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귀환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일본군의 전략 지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미군은 일본군의 군사시설과 병력을 장악하여 한반도를 군사점령하기 위한 거점으로 서울지구, 부산지구, 군산지구를 선정했다.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history-person@hanmail.net)

일본군과 미군의 교차지점 중 유동성이 가장 큰 해방공간은 부산이었다. 부산항은 대다수의 일본인과 일본군이 이동하고, 조선인들이 귀환하였으며, 귀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의 미군도 주둔했다. 부산은 미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주둔하는 공간이자,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귀환항으로 역사적 전개를 맞이했다.

주제어 : SCAP, GHQ, 송환, 인양, 귀환, 재조일본인, 38선, 부산, 조선군

## 머리말

1945년은 한국 역사의 변곡점이었다. 한반도의 물리적 통치는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넘어갔다. 군사력의 대체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예고했다. 1945년 일본군과 미군의 이동은 일본 ‘제국’이 붕괴하고 국민국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현대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글은 근대 동북아의 물리적 주체였던 일본군과 현대 동북아의 물리적 주체로 등장한 미군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교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군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귀환을 각각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일본군과 미군은 해방공간에서 귀환 또는 상륙했고, 일정한 기간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주둔했다.<sup>1)</sup> 여기에 의미를 두어 이 논문에서는 해방공간에서 일본군과 미군 이동을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항을 통해 교차하는 미군과 일본군, 그리고 공존했던 해방공간 부산지역을 세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과 미군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朝鮮終戰の記録』 1~4권이 있다.<sup>2)</sup> 이 저서는 귀환 업무를 담당했던 모리타 요시오

- 1) 귀환이라는 용어는 조선, 일본, 미군의 입장에 따라 송환, 귀환, 인양, 복원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이 글에서는 귀환으로 통칭하겠다.
- 2)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의 저작은 자료를 기반으로 귀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정리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참고서가 되고 있다.<sup>3)</sup> 한국에서 일본인의 귀환 연구는 최영호의 성과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4)</sup> 이와 함께 이연식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점령군, 일본인, 조선인 3자의 관계 속에서 귀환의 전개를 고찰했다.<sup>5)</sup>

유지아는 일본군 무장해제와 귀환 과정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상호인식과 정보교환, 그리고 이것이 일본군 무장해제와 귀환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밝혀냈다. 조건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군이 무단점령을 지속한 것은 연합군에게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고, 조선 남부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매우 안전하고 순조롭게 한반도에서 철군했다는 점을 조명했다.<sup>6)</sup> 제주도의 일본군 주둔과 무장해제에 대한 허준호의 연구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실정과 상황 속에서 진행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성과이다.<sup>7)</sup>

해방 직후 미군이 생산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일본군의 생산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축적했다면 최

1964 ;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篇』 1~3권, 1979.

- 3) 모리타 요시오는 조선총독부와 관변단체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일본으로 귀환한 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다. 『朝鮮終戦の記録』은 관계 연구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저작이지만 필자의 집필 목적, 자료의 선택 등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수반되어야 한다(황선의, 「해방 전후 在韓日本人의 敗戰 경험과 한국 인식-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4, 2010).
- 4)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일민족운동사연구』 36, 2003 ; 「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의 귀환」 『항도부산』 24, 2008 ; 「韓人 歸還者의 눈에 비친 解放直後 釜山의 이미지」 『한일민족문제연구』 20, 2011. 등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다.
- 5)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 6)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8, 2007.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지속과 귀환」 『한국학논총』 47, 2017.
- 7) 허준호,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2, 2006.

근에는 미군의 생산한 자료를 분석하여 글을 완성하고 있다. 송정현의 논문은 이 시기 미군의 한반도 점령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상당부분 채워주었다.<sup>8)</sup> 이보다 앞서 발표된 신재준의 글은 일본인 귀환에 대한 미군의 인식과 정책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sup>9)</sup>

일본군 귀환과 미군 점령에 관한 자료는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 소장된 자료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가 있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하나는 조선군 잔무처리반에서 작성한 『昭和20.9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로 일본군 귀환 과정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문서이다.<sup>10)</sup> 1945년 8~9월 京城일본군연락부장이 작성한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는 당시 일본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명시되어 있다.<sup>11)</sup>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1945년 10월 교통병참반 작성 『歸還輸送に關する綴』은 일본군을 집중 수송한 시기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sup>12)</sup>

미군이 생산한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수집 또는 간행한 자료들을 접근해 볼 수 있다. 부산항에서 귀환 업무 책임을 맡았던 게인(William J. Gane)이 작성한 보고서, 미군의 일일보고서와 주말 보고서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sup>13)</sup> 단행본으로 간행된 자료는 미육군 군사연구소 자료관에 소장된 원고를 영인한 『駐韓

8) 송정현, 「미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46)」,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9) 신재준, 「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군사』 104, 2017.

10)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2)』,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C15010602400);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3)』,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615700).

11) 京城日本軍連絡部長,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600).

12)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 防衛研究所(中央-軍事行政人事-251).

13) 「Repatriation-from 25 Sept. 1945 to 31 Dec. 1945」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5 of 6).

美軍史(HUSAFI)』 1~4권이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하여 『주한 미군사』를 간행했다.<sup>14)</sup>

이 글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전환되는 한반도 군사력의 실상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일본군의 귀환과 미군의 점령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지만,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연구는 향후 과제를 찾아가는 기초 단계로 삼고자 한다.

## I. 일본군 현황과 병력 배치

해방 직후 조선주둔 일본군은 25만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 군사령관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는 1946년 귀환하여 상주한 문건에서 당시 제17방면군의 규모를 “지상 2군, 9사단, 5사관구, 2혼성여단, 3요새, 항공 1군 1사단을 기간”으로 하는 약 23만 명이라고 보고했다.<sup>15)</sup> 조선에 있을 때 올린 상주문에 따르면, 그 중 조선 남부의 경우 1945년 11월 15일 까지 약 17만명이 복원하였으나, 조선 북부의 미복원자가 6만 3천명에 달한다고 했다.<sup>16)</sup> 미군의 자료에서는 조선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을 조선 북부 3만을 포함하여 20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치에는 약 5만명의 조선인은 포함하지 않았다.<sup>17)</sup> 조선인 징병자들은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이 제대조치를 했다.<sup>18)</sup>

1947년 4월 留守業務局鮮滿殘務整理部에서 작성한 자료에 조선 남부

14)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4, 선인, 2014,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 1 = HUSAFIK』 1-4, 돌베개, 1979)

15)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지속과 귀환」 『한국학논총』 47, 2017, 참고

16)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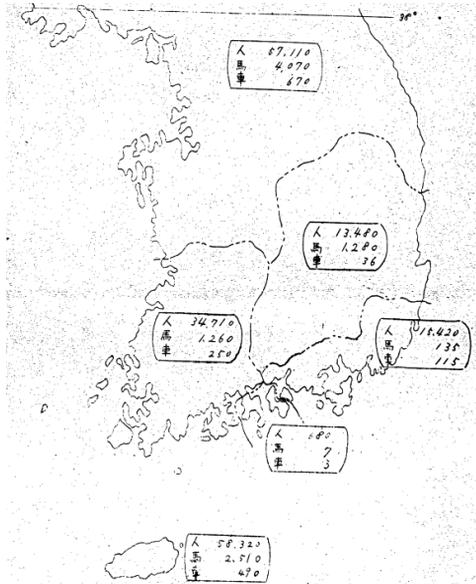
17)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선인, 2014, 337~338쪽.

18) 조선군에 배치된 조선인 군인과 군속의 귀환에 관해서는 신주백, 「해방 후 일본군 소속 조선인 군인의 歸路」 『한국학논총』 34,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주둔 일본군의 배치현황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sup>19)</sup> 조선군관구인 경성사관구·대구사관구·광주사관구가 편성되어 있었고, 제17방면군인 부산요새관구, 여수요새관구, 제주도를 포함했다. 경성일본군연락부에서 작성한 일본군 현황은 <표 1>과 같다.<sup>20)</sup> 이 자료는 미군에 보고되어 미군 G-2의 보고서에도 동일한 통계가 확인된다.<sup>21)</sup>

<표 1> 해방 직후 조선 남부의 일본군 병력 현황표

관구	인원
경성사관구	57,110
대구사관구	13,480
광주사관구	34,710
부산요새관구	15,420
여수요새관구	680
제주도 내	58,320
합계	179,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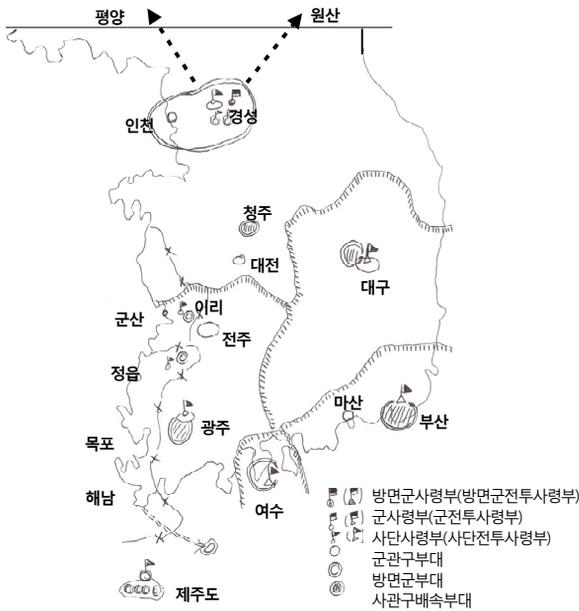


출처 : 京城日本軍連絡部長, 「職員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900)

- 19) 留守業務局鮮滿殘務整理部, 「朝鮮軍管区」 『北方鮮滿部隊編成補充担任部隊一覽表 昭和22年4月』, 194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10271000).
- 20) 부산요새관구의 경우 위 표에는 15,42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인원수를 합한 결과 15,415명으로 계산된다.
- 21) 「G-2 Weekly Summary, 9 Sept. 1945-16 Sept. 1945」 RG 332, United State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 - 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43 (3 of 5).

경성사관구는 강원도·경기도·충청남북도, 대구사관구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광주사관구는 전라남북도, 여수요새관구는 여수지역을 관할했다. 부산요새관구는 울산에서 남해에 이르는 경남 해안지역을 관할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의 주요 부대가 위치한 지역은 <그림 1>과 같다. 대구, 부산, 여수, 광주, 목포, 마산, 정읍, 전주, 이리, 대전, 청주, 인천, 경성으로 철도와 항만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해방 직후 조선 남부의 주요 부대 위치도



출처 : 京城日本軍連絡部長, 「職員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900).

이러한 편제는 1945년 2월 시행한 ‘本土決戰’ 체제였다.<sup>22)</sup> 한반도에 배치된 병력은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부대로 임시편성하고 제17방면군

22)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현실』 49, 2003. 참조.

사령관을 최고지휘관으로 했다. 제17방면군은 제34군, 제58군, 직할 제120사단, 제160사단, 제320사단, 독립혼성 제127사단, 기타 방면군직할 부대를 통솔했다. 또한 제3군의 일부인 제79사단, 조선군헌병부대, 조선 철도부대를 지휘하고, 조선의 작전방위에 임했다.<sup>23)</sup>

일본군이 예상한 미군 상륙 예상지점은 제주도, 군산, 해남, 삼천포였다. 부산과 여수는 요새사령부를 두어 항만을 집중 방어했다.<sup>24)</sup> ‘부산요새관구’에 소속된 병력은 <표 2>와 같다.

<표 2> 해방 직후 부산요새관구 배치 부대 및 인원

장소	부대	人員	
부산	부산요새사령부	146	8,402
	부산요새중포병연대	510	
	독립혼성제127여단	3100	
	고사포제151연대	1124	
	독립자동차제299중대	151	
	독립자동차제301중대	149	
	부산병참부	295	
	부산육군운송통제부	71	
	부산육군병사부	83	
	부산지구사령부		
	부산육군병원	150	
	독립철도제12대대	699	
	제169정차장사령부	28	
	제155경비대대	566	
	제41경비대대	630	
육상근무 제89중대	340		
헌병부대	360		
마산	대구사관구보병제2보충대	882	1,232
	마산중포병연대보충대	350	
관내전부	항공부대	5,781	5,781
합			15,415

출처 : 陸軍省, 『朝鮮軍人馬自動車概數表』, 防衛省防衛研究所Z(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0868300).

23) 陸軍省, 「第17方面軍」 『部隊行動表 昭和20年』,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0875800).

24)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155~159쪽.

1945년 8월 15일 이후 부산요새관새관구에 배치된 병력은 1만 5,420명이었다. 부산요새관구는 1945년 본토 결전 시기에 경남 해안지역의 방어를 임무로 한 부산요새사령관이 지휘한 작전구역이었다. 부산에 배치된 병력이 8,402명, 마산에 배치된 병력이 1,232명이다. 부산요새관구지역에 배치된 항공부대도 5,781명이다.

1945년 8월 15일 모든 전투행동을 중지하고 ‘중전업무’를 처리하여 9~12월 조선남부의 모든 부대는 서일본 항만으로 귀환하도록 했다. 조선 북부의 일본군은 소련군에 수용되어 노동부대로 편성되었다. 해방 직후 조선인은 모두 제17방면군 명령에 의해 각 부대 마다 그 주둔지의 소집을 해제했다.<sup>25)</sup>

고즈키 장군은 일본 민간인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계속 하되 “부산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제120사단 제260연대 제1대대는 부산의 질서 유지를 임무로 9월 18일 부산에 도착했다. 미군 제40사단이 도착하기 전, 9월 19일 필요한 경비병력과 연락반, 지원부대, 무장해제를 담당할 부대를 제외하고 부산에 주둔했던 모든 일본군 부대를 외곽으로 이동시켰다. 부산에는 부산요새사령관 이시카와(石川琢磨) 소장이 지휘하는 약 1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동하는 부대에는 최소한의 보급품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부산 시내에 남겨두었다.<sup>26)</sup> 9월 26일까지 제184연대 경비중대와 일본군 병사들은 부산 지역의 모든 감시초소에서 물러났다.<sup>27)</sup>

일본군 부산병사부는 9월 22일 현재 부산시 기장군 월내리로 이주했고, 9월 26일 부산 내에 주둔했던 부대 외 2,200여명은 해운대, 동래, 사상 등 철도선로 밖으로 철수했다. 9월 25일까지 부산요새사령부는 기장으로 이전하고 부산연락반이 부산요새사령부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sup>28)</sup> 10

25) 陸軍省, 『第17方面軍』 『部隊行動表 昭和20年』,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0875800).

26)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선인, 2014, 390쪽.

27)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83쪽.

28)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 653

월 20일 부산요새사령관이 군참모장에게 보낸 전보에 따르면 부산요새 사령부청사와 부속 병사는 미통신대가 주둔하므로 연락반을 아카츠키(曉)부대 청사로 이전하도록 했다. 부산병참부, 자동차중대는 일부를 연락부(현재 인원 약 150명)에 배치해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sup>29)</sup>

고사포 제151연대는 부산시 기장군 대변마을로 이동했다. 고사포대장은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 자료에는 자신의 부대에 조선인 출신의 병사 동향, 종전 직후의 치안 상황 등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고 있어 해방 직후 부산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 특히 재조선일본인의 귀환 상황, 부산에 진주한 미군들의 태도,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본국 송환 절차 등을 기록하고 있다.<sup>30)</sup> 대변마을 주둔 상황에 대한 회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연대의 일부 장병은 대변촌 부락에서 반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일본인 우편국에서 숙박하고 있었다. … 또 나의 승마 1마리는 대변촌의 논두렁에 두고 왔으며, 전용 승용차와 트럭 3대는 부산부두에, 또 요시다(吉田) 전 연대장에게 받은 애견도 옛 병사에 그대로 두고 왔다. 불쌍했던 것은 대변촌 우편국장의 가족으로, 이 국장의 집은 자택으로는 훌륭한 건물이었지만 여기의 부락(해안에서 조금 떨어진)에 일본인은 이 가족 밖에 없었고, 촌장이나 조역(모두 조선인)의 집은 불량선인의 폭행을 받았다고 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sup>31)</sup>

쪽, 759쪽, 522쪽(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29)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 防衛研究所, 922~925쪽(中央-軍事行政人事-251).

30) 이 자료는 1955년 무렵 일본군 고사포 제151연대장이었던 나가키 준키치(長岐準吉) 대좌가 부산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추억을 메모했던 노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회고록 형식의 기록이다. 고사포 제151연대의 부대호는 조선 제7420부대였다. 필자는 별도로 4장 ‘부산 부근의 추억’을 통해 일본의 패망 전후 부산지역의 일본군 부대 및 군사시설의 배치 상황과 일본군의 무장 해제 과정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Ⅱ, 일본 방위성 소장 부산주둔 일본군 자료집』, 신우정판사, 2013).

31)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Ⅱ, 일본 방위성 소장 부산주둔 일본군 자료집』, 신우정판사, 2013, 146쪽.

일본군 수송을 위한 공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검역소는 미군이 사용하고, 부립병원 일부는 미군 육군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일본군 부산육군병원은 공립고등여학교를 그대로 사용했다. 9월 20일 일본군의 수송에서 사용할 부산 숙영지를 문현(5500명 수용가능), 서면(3000명 수용가능), 아카사키(赤崎)(1000명 수용가능), 부산진(2000명 수용가능)이 있었다.

미군과 일본군의 협의 결과 9월 22일 군대수송은 제4부두를 사용하기로 했고, 대전과 경성의 군대가 일시 숙영할 곳은 서면과 부산진 숙영지로 결정되었다.<sup>32)</sup> 1945년 당시 부산의 일본군 군용지는 부산진, 서면, 감만, 문현 등에 있었다.<sup>33)</sup>

## II. 미군의 거점지역 주둔과 활동

미군은 일본과 조선을 점령하는 작전을 ‘블랙리스트(Blacklist)’라고 명명하고 태평양에 배치된 모든 육군과 해군 부대의 제1순위 임무로 태평양 미육군 사령부가 책임을 맡았다. 조선의 경우 점령 대상 지역은 1단계 서울과 인천 지구, 2단계 부산 지구, 3단계 군산 지구였다.

조선을 담당할 병력은 제10군으로, 그 예하 3개 보병사단으로 편성된 제24군단이었다. 1단계와 2단계의 최소병력은 78,690명, 이후 86,542명을 증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3단계 최소병력 23,435명을 포함하면 총병력은 109,977명이었다. 이것은 군정요원을 제외한 숫자였다. 초기 임무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교통통신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sup>34)</sup>

세 지구는 조선 남부에서 대규모 항구,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 그리

32)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 998쪽, 472쪽, 575쪽(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33)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10~115쪽 참고.

3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51~52쪽, 60쪽.

고 군사시설 및 교통의 요충지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미군이 거점지역으로 설정한 세 지구는 일본군의 거점이기도 했다.<sup>35)</sup>

‘블랙리스트’ 계획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병력은 육군과 해군을 합쳐 27만명으로 추정하고, 3만 5천명의 민병대가 있다고 보았다. 이후 전쟁부 자료와 태평양지구 총사령부의 적 병력 평가서는 8월경 37만 5천명으로 상향조정했다. 조선에는 위험한 자살특공대 훈련소도 있다고 추정했고, 항공기는 총 840대로 이 중 최소한 230대는 전투기로 추정했다.<sup>36)</sup> 이렇게 추산한 일본군 병력은 미군 제24사단이 조선에 상륙하자마자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GHQ의 하부기관이었던 주한미군은 2원조직 체제였다. 주한미군(USAFIK)은 제24군단 전술부대와 미군정(USAMIK) 조직으로 대별된다. 제24사단 산하에는 서울경기강원을 담당하는 제6사단, 전라제주를 담당하는 제7사단, 경상도를 담당하는 제40사단으로 대략 1945년 10월 말 배치를 완료했다. 조직 구성을 보면 제24군단 아래 참모부로서 기획인사서무에 G-1, 첩보·보안검열에 G-2와 방범대인 CIC, 작전·송환명령에 G-3, 예산·조달·무장해제에 G-4를 두고 있었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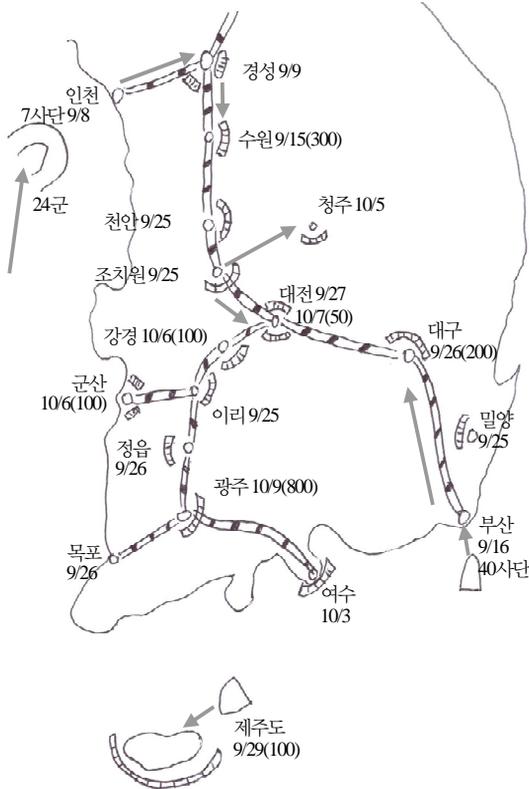
8월 9일 인천으로 상륙한 제7사단, 9월 16일 부산으로 진주한 제40사단, 9월 29일 제주도에 상륙한 제7사단의 이동 경로와 병력 배치와 인원 수는 <그림 2>와 같다. 서울, 수원, 천안, 조치원, 청주, 대구, 강경, 군산, 이리, 정읍, 광주, 목포, 여수, 대구, 밀양, 부산, 제주도의 상륙일과 인원이 명시되어 있다.

35) 송정현,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0, 29~51쪽 참고.

36)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63쪽.

37)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5~96쪽.

〈그림 2〉 미군 진주 현황



( ) 안의 숫자는 병력수, 는 미군연락반 주둔 지역

출처: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 防衛研究所, 71쪽(中央-軍事行政人事-251).

미군은 상륙 이전 조선과 일본군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세웠다. 부산에 대해서는 점령지역의 두 번째 큰 도시이자, 조선의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로 인식했다. 만주와 일본을 잇는 교통의 관문이고, 일본군의 주요 요새지역이자 조선에 주둔한 해군기지 본부인 진해와 가까이 있다고 파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8)</sup>

3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73~274쪽.

부산-심양 철도의 남쪽 종착역이었다. 일본과 대륙 사이의 모든 철도 교통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유효한 정보에 따르면 아주 넓은 조차장과 수리 공장, 통신 시설, 다양한 종류의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 지역에 광물 자원은 없지만, 남동지역의 가장 중요한 여항이었고, 조선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대식으로 포장된 도로와 전차가 있고, 서울에서 시작되는 전천후 도로의 종착역이라고 보고되었다. 군사적으로 부산은 ‘주요 요새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부산에서 서쪽으로 25마일 정도 떨어진 진해에는 조선에서 가장 큰 해군기지가 있었다. 이는 부산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에는 주요항구인 부산항, 정박지인 다대포항과 동진감천항 등이 있었고, 보조항구로 마산항, 울산항, 방어진항이 존재하고 있었다. 부산, 진해, 마산, 삼량진, 울산에는 일본군의 비행장이 있어 미군의 항공 수송도 가능했다. 특히 부산은 산업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항공기, 선박, 철도를 수리할 수 있었다.<sup>39)</sup>

이처럼 교통, 항만, 수송 등의 편의와 기능이 있는 부산은 가능한 빨리 점령해야할 작전구역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13일 군단이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도 태평양 미육군 사령부는 하지 장군에게 부산의 빠른 점령을 지시했다.<sup>40)</sup> 서울을 점령한 미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후, 9월 12일 경기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9월 15일 수색대는 부산으로 떠났다. 부산 파견대의 임무는 항만 시설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호텔에 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의 일본 당국으로부터 최대한의 협조를 받았다. 파견대는 부산의 항만 시설들이 양호하고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귀환 움직임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았다. 다만 기뢰로부터 안전한 부두나 정박지가 없어 기뢰 제거를 상급기관에 요청했다.<sup>41)</sup>

부산항에서 해군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요청하자, 태평양 미육군 사령부는 진해에 상륙할 것을

39) 송정현, 「미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46)」,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44~47쪽 참고.

4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74쪽.

4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190~191쪽.

제안했다. 일본 해군성은 진해항에 기뢰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태평양전략공군은 7월 동안 진해에 접근하면서 총 68개의 기뢰를 투하했다고 보고했다. 진해는 작은 정박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지상 수송수단도 부족했기 때문에 진해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sup>42)</sup>

9월 19일 하지 장군은 제7함대 사령관에게 가능한 빨리 부산지역의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과 그 주변 진입로를 포함한 구역에 책임이 있는 제5함대가 움직였다. 9월 29일 상륙용 주정급 배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10월 중순까지 기뢰 제거 작업은 계속되었다.<sup>43)</sup>

부산에 주둔한 제160연대는 부산항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일본군과 일본, 조선 민간인을 승선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미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 2월 22일까지 제160연대는 113만 972명의 수송을 시행했다. 조선으로 귀환하는 조선인 71만 536명,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군 10만 2,984명, 일본인 31만 7,452명이었다.

부산과 주변 지역의 일반 경찰업무도 시행했다. 연대가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인 막사 내 임시 숙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부산에서 귀환과 피난 처리 업무에 더해 제160연대는 일본군의 창고와 부대 시설을 감시하는 초소를 세웠다. 감시 대상에는 많은 대공 진지와 레이더 기지, 두 개의 공항기지, 장자등 요새가 포함되었다.

미군은 제40사단이 부산에 주둔하기 이전에 300명 이상의 육군과 해군으로 구성된 정찰대를 먼저 보냈다. 군단사령부, 제24군수지원사령부, 제308폭격비행단, 군정, 제40사단 선발대, 해군, 언론인, 경비를 담당할 제184보병연대 소총중대의 대표들을 포함했다. 정찰대는 필요해 보이는 모든 운송수단과 10일치 배급량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찰대는 임시 숙소 지역을 확보하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부산의 일본군 병력을 도시 밖으로 이동시켰다. 공군은 중형 폭격기를 수용할 수

4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78쪽.

4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85쪽.

있는 포장된 비행장에 자리 잡았다.<sup>44)</sup>

9월 26일까지 제184연대의 경비중대와 일본군 병사들은 부산 지역의 모든 감시초소에서 물러났다. 부산역 내는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부산의 모든 경찰은 군정 당국이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선인들을 훈련시킬 때까지 임무를 수행했다.<sup>45)</sup>

9월 21일 제1진을 지휘하는 부사단장 로버트슈 준장은 필수 보급품을 갖춘 약 1,400명의 장교와 사병이 육로를 통해 부산으로 갈 것이고, 모든 상륙용주정과 중형상륙함은 해상으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 적재된 상태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날 제24군단 야전 명령 56이 발표되었다. 2단계 작전수행으로 전환되었다. 9월 22일 미 제24군단은 상륙지점으로 인천을 선택하고 상륙했다. 제160보병연대는 기차를 이용해서 10월 2일까지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전투단의 병력이 모두 부산에 도착했다.<sup>46)</sup>

9월 23일 제160연대 선발대 중 일부는 야영지 정찰을 위해 기차를 타고 대구로 떠났다. 부산 다음의 점령지역이 대구였다.<sup>47)</sup> 제40사단은 진주를 명령받은 9월 21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을 가능한 빨리 점령하고, 거기에 인접한 모든 섬들도 통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경상도 내에 정부를 설립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통제를 감독하는 것이 임무였다. 진해에서 일본 해군의 무장해제 작업 중인 제7함대를 지원하고 부산항과 진해항을 통해 일본으로 귀환하는 민간인과 일본군을 통제하는 임무, 경상도 지역 내의 서울-부산 철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sup>48)</sup>

제160연대 제2대대는 처음 1일당 최고 2만명의 군인 또는 1만명의 민간인 수송을 계획했다. 185명으로 이뤄진 3개의 부대가 8시간 교대로 24시간 계속 활동했다. 각 부대 검사반, 안내반, 접수반, 운송반, 정리반, 위

4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75~276쪽.

4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83~284쪽.

46)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80~282쪽.

4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84쪽.

4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280쪽

생반으로 편성되었다. 40명의 검사반은 금지물품을 검사했고, 몇 명의 통역을 포함한 안내반은 역과 부두에 도착한 일본군인들을 처리지점까지 안내했다. 20명의 접수반은 귀환한 조선인의 인원수를 확인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운송반은 트럭 10여대로 일본으로 가는 군인과 민간인의 화물을 운반했다. 정리반은 15명가량으로 귀환하는 일본인의 물품, 화물을 구분하고, 창고로 이동시켰다. 위생반은 부두에서 필요에 따라 청소를 했다.<sup>49)</sup>

일본군의 수송은 미군의 전술부대가 주도했다. 군정요원들의 편성과 배치가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일본군의 수송은 군사작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전술부대의 임무였다. 미군은 일본군 무장해제와 귀환을 첫 번째 임무로 하여 상륙했다. 군정요원이 편성을 완료하고 도착하기 전까지 전술부대가 중앙과 지역의 행정을 모두 담당했다. 1945년 10월 이후 군정요원 배치가 증가했지만 조선 남부의 모든 행정을 담당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행정은 전술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sup>50)</sup>

### Ⅲ.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수물자 처리

미군은 일본군과 정전교섭에서 무장해제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각 부대의 인원수, 군마, 주요병기(소총, 총검 등) 군수품 현황을 긴급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sup>51)</sup>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총괄하는 것은 미군이었으나 소집해제한 일본군의 재소집, 무장해제, 부산으로 수송, 부산항에

49)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篇 2』, 巖南堂書店, 1979, 26쪽.

50) 정용욱 외, 『주한미군사와 미군정기 연구』, 백산서당, 2002, 116~121쪽 참고.

51)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516쪽.

서 일본으로 귀환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일본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제24군단은 일본군의 전투서열 해제를 지시하면서 세부계획은 일본군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선군관구사령부에서 일본군 귀환계획을 수립하고 제24군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미군은 서울에 있던 일본군의 경우 9월 10일까지 무장해제 했지만, 25%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서울의 경비를 허가했다. 조선군사령관에게 일본군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 그 외 지역은 10월 20일까지 무장해제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 각 지역의 일본군을 수송해야 하는 부산은 9월 25일까지 무장해제를 완료하도록 했다.<sup>52)</sup>

미군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무기와 군수품을 지정된 장소에 집결시켰다. 인계된 병기격납을 준비한 곳은 천안, 조치원, 대전, 이리, 정읍, 대구, 밀양 등 미군 장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군연락반이었다.<sup>53)</sup>

미군은 무장해제를 위해 일부 일본군을 1946년까지 남겨두었다. 잔류한 노무부대는 탄약 수송과 보급품 관리를 맡았다. 11월 초에는 대구에 300명, 경주에 100명, 부산에 2,000명의 노무부대원이 남아있었다. 부산의 노무부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군 부대를 관리하는 업무를 지원했고 부두를 정리하는 일을 했다. 노무부대는 12월 1일까지 대부분 철수했으며 부산에만 제160연대에서 차출된 500명의 병력이 남아 있었다. 부산에 잔류한 병력은 탄약을 폐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sup>54)</sup>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 중 무기와 군수물자 처리에 대한 지침은 9월 27일 군참모장은 교통병참반에 ‘38도 이남 조선군관구부대 귀환수송요령안’에서 확인된다. 이 문서에는 위생재료, 수의재료, 군용동물 처리에 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육군부대와 병원의 위생재료처리는 별도의 지침이 하달되었고, 수의재료는 다른 군수재료와 함께 미군에 인계하도록 했다. 군용동물 처리는 미군의 지시를 받고, 지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52) 유지아, 앞의 논문, 2007, 182~184쪽.

53) 森田芳夫, 앞의 책, 1964, 338~339쪽.

5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90~391쪽.

는 소각하도록 했다.<sup>55)</sup>

10월 2일 조선군관구사령부가 58A, 120D, 150D 160D 320D 5FD 경성사관구, 대구사관구, 광주사관구, 부산요새사령부, 여수요새사령부, 제5철도총감부, 조선헌병대사령부, 인천조병창 등에 배포한 朝參動特 제14호 ‘조선 내 육군부대 복원에 관한 세부 지시’에 따르면 소지하고 있던 병기 탄약 이외의 군수품은 승차지 혹은 승선지에서 미군에 인도하라고 명기되어 있다.<sup>56)</sup>

일본군의 장비와 시설을 처분하는데 기본 원칙은 연합군최고사령부가 9월에 하달한 ‘점령 지령 제2호’에 들어있다. 전투용 장비는 미군이 정보 분석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념품, 전리품으로 쓸 것을 제외하고 파괴했다. 민간 소비재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품은 민간인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군사시설은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약 1주일 뒤 제24군단의 ‘행정 명령 제19호’가 발령되었다. 일본군의 장비는 네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무기, 탄약, 폭발물, 장비와 보급품이었고, 둘째는 해군 선박과 해군에 징발된 보조 함선, 셋째는 항공기, 넷째는 시설, 기지, 요새였다.

제24군단 예하 부대의 관할지역에서 발견된 선박과 시설물은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했다. 그 밖의 자동화기, 항공기, 폭탄, 항공기용 무전기, 레이더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장비는 파괴했다. 파괴 방법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정보 분석과 연구에 필요한 품목이나 미군 부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장비, 민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자, 전리품이나 기념품으로 쓸만한 품목, 기상 장비는 예외로 두어 파괴하지 않았다. 제24단 병기참모부는 무기와 폭발물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지 보관 지역에서 파괴하고, 그 외에는 부산항으로 옮겨서 처리하기로 했다.<sup>57)</sup>

55)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 防衛研究所, 1039~1047쪽.(中央-軍事行政人事-251)

56)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 防衛研究所, 1131~1143쪽.(中央-軍事行政人事-251)

일본군이 남겨둔 막대한 양의 탄약을 파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탄약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일본군이 탄약을 보관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매우 혼잡한 상태여서 인천항을 통해 탄약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산항을 통해 바다에 투기할 수 있는 탄약을 제외한다른 모든 탄약은 현재 저장된 장소에서 파괴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일본군 병사를 동원해서 바다에 투기할 탄약을 운반하고 있다.

제40사단 관할구역의 일본군 무기와 탄약 처리는 진해에서 시작됐다. 일본군은 탄약을 바다에 투기하기 위해 진해에 모아놓고 있었다. 미해군은 대략 9월 말경에 일본 해군의 탄약을 모두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진해에 있던 해안포와 사격통제장비도 모두 폭파시켜 파괴했다. 11월 제40사단이 진해에 모인 탄약을 처리하는 임무를 인계받았고, 진해 기지 주변에 있던 창고로 개조된 동굴들을 폐쇄했다.<sup>58)</sup> 탄약처리 과정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다. 10월 15일 기뢰 71개가 두 차례에 걸쳐 폭발하여 271명의 사상자와 선박 26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sup>59)</sup>

대부분 제40사단 관할구역에 있는 여러 일본기지에 보관된 일본 해군의 탄약을 처리하는 임무는 처음에 미육군과 해군의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10월 초에 제71기동부대 사령관이 하지 장군에게 영일과 평택기지에서 일본 해군 병력을 이용해 해군용 탄약을 처리하는데 미육군이 간섭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항의했다. 제7사단과 제40사단은 일본군이 탄약을 배에 실어 바다에 투기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11월 초에 제40사단의 예하 부대들, 특히 제115전투공병대대는 부산 지구에 집적된 탄약과 기타 장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내륙 지역에 집적되어 있던 장비들을 부산으로 수송한 뒤 바다에 투기했다. 10월 27일 부산의 제24군수지원사령부 관할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나 일본군의 탄약을

5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405~408쪽.

5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410쪽.

59) 고정석, 『鎮海軍港史』,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146~149쪽 참고.

신고 있던 바지선에 불이 옮겨 붙었다. 바지선이 폭발하면서 주변 시설이 크게 파괴되었다.

미군이 운용하고 있던 일본군 노무부대 중 탄약을 처리하기 위해 잔류하고 있던 500명의 분견대는 마지막으로 조선을 떠났다. 12월 24일 이 분견대에서 229명이 차출되어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제6사단 관할지역의 탄약 처분을 맡았다.

제6사단은 조선에 도착하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관할 지역의 일본군 무기와 탄약을 파괴했다. 처음에는 매우 소량의 무기와 탄약만 처리할 수 있었으며 때때로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인에게 무기와 탄약을 인계받았다. 11월 27일까지 부산에 있던 일본군 탄약창의 탄약 대부분을 바다에 투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탄약이 일본군 주둔지에 남아있어 제53야전포병대대가 마산에 파견됐다.<sup>60)</sup> 마산은 중포병연대의 주둔지였다. 제주도에서는 5만여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제주도 전체가 군사기지로 긴급히 구축되면서 많은 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sup>61)</sup>

탄약처리 중 폭발사고로 수명의 사상자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자, 미군은 일본군 병력을 활용하고 바다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지침을 선회했다. 1946년 4월 말경 일본군 노무부대 509명은 귀환했고, 탄약류의 처분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탄약을 처분하는 동안 미군 장교 6명과 병사 45명이 사망했다.<sup>62)</sup>

무기와 탄약 외에 미군이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민간 경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남아있었다. 대표적인 물자는 일본군의 자동차와 군마였다. 일본군의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군마 9,262필, 자동차 1,564대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 <표 3> 해방 직후 조선 남부의 군마와 자동차 현황

6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410~411쪽.

61) 허준호,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2, 2006 참고.

6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412~413쪽.

관구	말	자동차
경성사관구	4,070	670
대구사관구	1,280	36
광주사관구	1,260	250
부산요새관구	135	115
여수요새관구	7	3
제주도 내	2,510	490
합계	9,262	1,564

출처 : 京城日本軍連絡部長, 「職員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900).

제주도에 있던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물자통제회사를 통해 미군정에 지급되었다. 군마는 최소한 1500필이 군정청에 양도되어 민수용으로 전용되었다. 제주도의 일본 군견은 제24군수지원사령부에서 경비용으로 사용했다.

건설장비를 포함한 수많은 공병 장비도 미군의 작전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3월 쓰지 못한 일본 공병의 물자가 많이 남아있었다. 일본군의 군수보급 장비 중 일부는 미군이 사용했지만 대부분 군정청에 이관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군수보급 장비가 1946년 2월까지 처분되었다. 일본군 군복과 군화 일부는 조선 경찰이 사용했다. 화학무기는 미군 전술부대에서 처리했고, 의료 장비는 군정청 보건국에 인계되었다. 통신 장비 중 일부는 미군의 작전에 사용했지만 대부분 군정청에 인계되어 민간 통신에 사용되었다.

일본군의 장비가 대량 집적되어 있던 진해에는 조선인들이 창고를 열어 물자를 가져가는 사건도 발생하고, 미군 부대의 병사들은 통신장비와 자동화기를 제외하고 마음대로 골라서 기념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다. 민간 경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자들이 미국으로 보내지거나 증발되었고, 훼손되었다.

항공기는 극동공군 제308폭격비행단 정보팀에서 조사한 뒤 11월 19일 모두 파괴했다. 전투용 항공기는 모두 파괴하고, 남은 잔해 일부는 물자

통제회사에 인도했다. 수송기는 민간 항공사를 만들기 위해 군정청으로 이관하고 비행장에 있던 몇 대의 트럭은 미군이 사용했다. 1945년 12월 초까지 138대 항공기를 파괴하고, 6월 중순 항공기 처리는 완료했다.<sup>63)</sup>

## 맺음말

미군이 주둔하면서 점령한 지역은 일본군의 군사적 거점지역이었다.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귀환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일본군의 전략 지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일본군의 군사시설과 병력을 장악하여 한반도를 군사점령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 임무는 미 태평양육군 산하의 제24 군단이 맡았다. 거점 지역을 서울지구, 부산지구, 군산지구로 설정하고, 병력을 우선 배치했다. 초기 한반도 남부의 점령은 군정부대가 자리잡기 이전 전술부대에 의해 군사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본군과 미군이 교차한 지역 중 유동성이 가장 큰 해방공간은 부산이었다. 부산항은 대다수의 일본인과 일본군이 이동하고, 조선인들이 귀환하였으며, 귀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의 미군도 주둔했다. 부산은 미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주둔하는 공간이자,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귀환항으로 역사적 전개를 맞이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가장 먼저 일본군 무장해제와 철수를 실시했다. 일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군정의 행정업무가 아니라 미군의 첫 번째 군사작전이었다.

1945년 조선 남부에서 교차했던 미군과 일본군의 이동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일본 ‘제국’이 붕괴하면서 국민국가로 재편되고, 그 과정에서 국경이 재설정되었다. 국경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인구 대이동을 수반했다. 이때 가장 먼저 표출된 현상은 군의 이동이었다. 한반도의 군사력이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바뀌었다. 미군이 조선 남부에 주둔하면서 군

6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414쪽.

사적 지배가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넘어갔다. 군이 교차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의 이동과 같다. 패전국인 일본군과 승전국인 미군의 군사적 재배치가 조선 남부에서 전개되었다. 이것은 현대로 재편되는 과정이자 냉전체제의 전조였다.

【참고문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한 미 제40사단 정보참모부 일일보고서(1945.9-1946.1)』, 1993.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4, 선인, 2014.

문화재청, 『태평양 전쟁 유적(부산·경남·전남 지역) 일제조사 연구용역』, 2013.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 Ⅲ-일본방위성 소장 일본군용지 설계자료집』, 신우정판사, 2013.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 Ⅱ, 일본 방위성 소장 부산주둔 일본군 자료집』, 신우정판사, 2013.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駐韓美軍情報日誌1, 1945.9.9-1946.2.1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8.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2)』,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602400).

朝鮮軍司令部, 『昭和20.10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3)』,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615700).

京城日本軍連絡部長,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600).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 防衛研究所, 中央-軍事行政人事-251.

陸軍省, 「第17方面軍」, 『部隊行動表 昭和20年』,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0875800).

留守業務局鮮滿殘務整理部, 「朝鮮軍管区」 『北方鮮滿部隊編成補充担任部隊一覽表 昭和22年4月』, 194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10271000).

「Repatriation-from 25 Sept. 1945 to 31 Dec. 1945」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5 of 6).

「G-2 Weekly Summary, 9 Sept. 1945-16 Sept. 1945」 RG 332, United State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 - 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43 (3 of 5).

고경석, 『鎭海軍港史』,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나남, 2014.

- 정용욱 외, 『주한미군사와 미군정기 연구』, 백산서당, 2002.
-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논형, 2013.
-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篇』 1~3권, 巖南堂書店, 1979.
- 蘭信三編, 『日本帝國をめぐる人口移動の國際社會學』, 不二出版, 2008.
- 蘭信三編, 『帝國以後の人の移動 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グローバリズムの交錯点』, 勉誠出版, 2016.
-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송정현, 「미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46)」,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신재준, 「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군사』 104, 2017.
-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현실』 49, 2003.
-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 연구』 28, 2007.
-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지속과 귀환」 『한국학논총』 47, 2017.
-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일민족운동사 연구』 36, 2003.
- 최영호, 「韓人 歸還者の 눈에 비친 解放直後 釜山の 이미지」 『한일민족문제연구』 20, 2011.
-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의 귀환」 『항도부산』 24, 2008.
- 황선익, 「해방 전후 在韓日本人의 敗戰 경험과 한국 인식-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4, 2010.
- 허준호,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2, 2006.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
2021.03.22	2021.04.07	2021.04.30

**[Abstract]**

U.S. military and Japanese military movements crossing  
in the liberation space in 1945

Kim, Yun-Mi

The article noted that Japanese and U.S. troops intersect in a liberation space. The movement of Japanese and U.S. forces in 1945 marke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U.S.-led movement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s state.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were the first to disarm and withdraw Japanese troops. The withdrawal of Japanese troops was not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U.S. military, but the U.S. military's first military operation. This is because South Korea was not a "liberation zone" but a "occupation zone" directly controlled by the U.S. military.

The area occupied by the U.S. military was the military base of the Japanese military. The U.S. military deployed its forces at the strategic point of the Japanese military, as it aimed to disarm and return the Japanese troops. The U.S. military selected Seoul, Busan and Gunsan districts as bases for military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aking control of Japanese military facilities and forces.

Busan was the most fluid liberation space among the intersection of the Japanese and U.S. forces. Most Japanese and Japanese troops moved to Busan Port, Koreans returned home, and a large number of U.S. troops were stationed

to control and manage the return. Busan was a space where both U.S. and Japanese troops were stationed. The port of return of Koreans and Japanese also marked a historic development.

**Keywords** : SCAP, GHQ, Japanese residents in Korea, 38th parallel, Japanese military stationed in Korean, Repatriation